

英詩로 읽는 불교... '새맛'

Keep your mind undisturbed
Leave your thoughts behind.
Then you will see your Self-nature,
The Buddha mind.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자성(自性)을 보게 되며
부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 'The Buddha mind' 中

Finding Our Mind: Prelude

박영의 지음 | 여시아문 | 8천5백원

“마음 찾기”에는 색다른 도반이 있으니, 박 교수가 평생을 함께 해 온 ‘영어’다. <Finding Our Mind: Prelude>에는 박 교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이한 48편의 영시(英詩)와 우리말 해석본이 담겨 있다.

40여 년간 기독교에서 진리를 찾아온 박 교수는 <모비딕>의 작가인 미국 해양소설가 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의 작품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복종적 믿음 대신 ‘부처님과 내가 들어’ 불교 사상을 통해 참된 자

영문학자 박영의 교수, 영시 시리즈 중 첫권 발간 목탁·죽비 등 용어와 불교사상·수행법 쉽게 풀이

아를 찾아 나섰으며, 총남대 불자교수 대원회 회장과 한국불교연구원 대원 구도회 고문을 맡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자랑스러운 국제선원 개원식에 참석해 영문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좀 더 쉽게 알릴 줄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다. 그 해답이 ‘불교 영시’다.

“처음엔 참선과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어렵고 함축적이란 한층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야 생각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낱말이 늘고 있는 요즘, 이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로도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출간된 책은 ‘서문(Prelude)’이라는 부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불교 입문자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목탁’ ‘죽비’ ‘인연’ ‘중도’ 등의 시에서는 불교 용어를 쉽게 풀이하고, ‘불교는 허무주의?’ ‘전쟁과 종교’ ‘염불과 화두’ 등에서는 불교사상과 수행법을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시가 단순한 어구 풀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박 교수는 ‘무념(無念)’을 ‘생각 없는 생각(thought without thinking)’으로, ‘일주문’을 ‘은 우주를 감싸는 허공과 같은 빈 마음(The void, which embraces the whole universe)’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직접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에 실린 영시들은 초심자들이



영시(英詩)로 불교의 가르침을 풀어내는 박영의 교수.

를 위한 것이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내용을 심화해가며 총 6권으로 ‘불교 영시’ 시리즈를 완간할 예정이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일으키는 것 같지만 험사리 다잡을 수도 없는 것. ‘마음(Mind)’이다. 박영의 교수(총남대 영문학)는 바로 이 ‘마음’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백제에 불법 전파한 마라난타 스님 소설로



마라난타 민희식 · 장성욱 지음 | 화남 | 9천원

“부처님이시여! 부디 이 항해가 순조롭게 되어 불법(佛法)을 백제에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384년(침류왕 1) 백제에 최초로 불교를 전래한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의 전기소설이 두 불문학자에 의해 선보였다. 민희식(72) 교수는 이화여대와 성균관대·한양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50여 권이 넘는 저서와 번역서를 통해 프랑스 문학작품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프랑스문화홍장을 수여한 불문학계 원로 민 교수는 장성욱 교수(48, 동의대)와 7년간의 공동 집필 끝

에 소설 <마라난타>를 완성했다. 두 지은이는 마라난타 스님의 행적을 찾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일본 등에서 관련 자료와 문헌을 수집했고, 중국과 실크로드에 인접한 여러 나라에 남아 있는 스님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이러한 노력 끝에 4세기 무렵 간다라 지방의 모습을 비롯해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설로 복원해냈다.

소설은 브리탄 계급 출신인 마라난타의 출생과 성장과정, 불교를 만나게 된 사연, 불교사상을 접한 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도의 길에 나서게 된 과정을 시대순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인 전남 영광군 백성포에 세워지고 있는 마라난타사.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 간다라에서 출발해 실크로드를 따라 문황과 동진에 이르는 여정과 미지의 땅인 백제에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떠난 길에서 겪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등을 생생한 문체로 되살려냈다.

민 교수는 “마라난타 스님에 대한 책은 고사하고 연구 자료도 거의 없는 형편이라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나서게 됐다”며 “부족한 자료지만 이를 토대로 스님의 삶과 백제 사람들의 삶을 최대한 정확하게 살리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여수형 기자

“견성은 수행의 시작”



21세기 불교의 메시지 만현 스님 지음 현지공현지사 1만5천원

우리는 수행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혹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현 스님(총천 현지사 회주)이 전하는 <21세기 불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자.

1960년 부산에서 출가한 뒤 ‘법성’이라는 법명으로 조계종 포교부장을 지냈던 스님은 이후 종적을 감추고 30여년간 은둔 수행해 왔다. 최근 ‘염불수행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라는 부제로 펴낸 책에서 스님이 전하는 ‘불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의 불교는 그 내용이나 외양에 있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견성(見性)이 곧 성불’이라는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깨달음은 불교수행의 목표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공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님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道)를 이루어 아라한(阿羅漢)의 경지에 이르고, 다음 생애 다시 원력 수행해 보살이 되고, 또 다시 수행을 통해 보살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수행승은 무엇보다 음계(陰戒)를 지키고 효(孝)를 다해야 하며 견성을 잃고 염불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칭명(稱名)염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는 길 잃은 자식이 어머니를 찾듯 간절히 불려야 합니다. 부처님 상을 마음속으로 그려가면서 염불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끊어짐 없이 염불이 되어야 진정한 염불선입니다. 염불선은 보살의 경지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도을 망언에 대한 일갈’ ‘현지공 현지사 수행일지’ 등의 글이 실려 있으며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코너를 마련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번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캐션(箕城快書)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게 조적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이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새로운 책

■ <죽는법을 모르는데 사는법을 어찌알라>(오현 스님 지음, 장승, 1만원) = “소금은 많이 먹을수록 물을 권다. 쾌락도 마찬가지이다. 좋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절제의 미덕이 없으면 물이 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죽는법을 모르는데 사는법을 어찌알라>에는 소금이 음식 맛을 낸다는 생각에 모든 음식에 잔뜩 뿌려 먹거나 귀한 흑단향목을 솥으로 만들어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한다. 오현 스님이 풀어주는 <백유경>을 읽어가다 보면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이나 자신임을 깨우치게 된다. 1993년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책의 개정판이다.

■ <피안으로 떠나는 여행>(일봉 스님 지음, 정우서적, 7천원) = 청주 광덕사 주지 일봉 스님의 수장집. 어린이 포교와 군부대 법회 등에 주력하며 지역 불심 다지기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이 그동안 신문에 실었던 칼럼과 인도성지 순례 기행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포교 일선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현대인들이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문제들을 짚막한 글에서 담고 있다.

붓다와의 대화

■ <붓다와의 대화>(구모이 쇼젠 지음, 이필원 옮김, 심산, 1만원) = 구모이 쇼젠 교수(오타니대학 명예교수, 천태종 종합연구센터장)가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를 통해 자신의 불교관과 인생관을 풀어내고 있다. <숫타니파타>의 구성과 성립 과정 등을 살펴보고, 그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문재현 역, 바로보인, 1만5천원) = 서울과 광주, 부산의 삼원선원 모임을 결성했고 바로보인 출판사를 설립해 불서를 펴내고 있는 문재현씨가 그동안 재자들과 선 수행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록으로 엮었다. “깨달은 후 불지(佛地)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선화(禪華)’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매 일여와 일삼삼매는 같은 것인가” 등 120여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출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주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환단고기. 건강대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재현 선스님께서 명인종사의 인묵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수독내용 ■
공화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처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掌紋) 보는 법 ▶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전 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옥(명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우암산 일봉스님 수상집

피안으로 떠나는 여행

작은 스님의 큰 범문

일봉스님의 글은 불교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불교의 모든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은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삶의 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봉스님은 속담과 유명인의 일화, 시구와 자신의 체험담 등을 곁들여 차분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 현대를 사는 불교의 지혜를 일깨운다. 특히 일봉스님의 글은 복잡하거나 난해한 문장이 아니며, 내용들 역시 까다롭거나 지적 사교를 강요하는 그런 글들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일봉스님의 글들을 부담없이 읽히게 하는 요소들이다. 일봉스님은 영악함보다는 순박함을, 계산보다는 나눔을, 증오보다는 용서함, 부정보다는 화해의 휴머니즘을 글속에 담고 있어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한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 94
TEL: (02)765-2920
www.jbp.co.kr

일봉스님 저/신국판/값 7,000원